

여수섬박람회, 막바지 흥행 넘어 ‘관람 내실’ 높인다

여수세계섬박람회가 폐막을 20여일 앞 두고 전시·체험과 관람 편의를 보장하며 막바지 손님맞이에 나섰다. 공연과 무료입장 확대로 살아난 방문 열기를 이어가는 동시에 개막 초기 지적받은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18일 여수시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전시관에 해설사를 추가 배치하고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지난 7일부터는 국제교류섬 참여 지역을 하와이·고치·팔라우 등으로 교체해 후반기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주제섬에서는 AI 다성어 해설을, 미래섬에서는 드론 조종 체험을 마련했다. 문화섬의 소망 종이에 만들기와 전시관 유물

을 찾는 참여 행사 등도 운영한다.

전시물을 둘러보는 방식에서 나아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이같은 조치는 개막 이후 나온 콘텐츠와 관람 여건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박람회는 초반 먹거리 구성과 공연 운영, 전시·체험의 완성도 등에서 비판을 받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최근 주행사장을 찾아 관람객 유치뿐 아니라 섬의 가치와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콘텐츠와 관람 편의를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직위는 전시·체험 보강과 함께 대형 공연과 주말 선상 불꽃놀이, 지역 문화에

전시·체험·관람 편의 등 보강…연휴 관람객 증가 폐막 앞두고 콘텐츠 만족도·시설 사후활용 준비 병행

술인들의 재능기부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낮에는 전시와 체험을 즐기고 저녁에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입장료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병행한다. 여수시민의 날인 15일과 문화의 날인 17일에는 모든 관람객에게 행사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전국 섬 주민과 12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관람객 2인도 무료입장 대상이다. 이달 1~11일에는 65세 이상 관람객

에게 무료입장을 적용했다.

연휴에는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 이달 첫 연휴 나흘간 26만1071명이 박람회장을 찾았으며, 4일 하루 입장객은 13만1905명으로 집계됐다. 조직위는 이를 관람객 유치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후반기 콘텐츠와 행사를 확대했다.

다만 방문객 증가에도 이미 판매된 입장권은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다. 판매된 40만3000여장 가운데 약 70%가 미

사용 입장권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료입장과 공연으로 방문 수요를 늘리는 것과 함께 입장권을 구매하고도 찾지 않은 관람객의 발길을 이끄는 일이 막바지 과제로 남았다.

조직위는 보강한 전시·체험과 공연을 운영하며 폐막일까지 관람객 유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섬박람회 관계자는 “섬이 가진 자연·문화·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라민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콘텐츠를 향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운영을 보완하는 가운데 준비 과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검증 요구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시

민 6732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업비 증액과 시설·콘텐츠 계약 이행 및 검수, 철거·사후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사 착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진다. 남은 기간 전시·체험의 만족도를 높이고 미사용 입장권의 실제 방문을 유도하는 한편, 폐막 이후 시설과 전시물의 활용도 준비해야 한다. 여수시는 사후활용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행사 종료 후 시설 활용과 이관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3회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강령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8일 영암 대불종합체육공원에서 열린 '제3회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내빈 및 참석자들과 산업안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안도걸 “성장격차 커져 추락하는 호남경제 개선대책 절실”

반도체 호황에 수도권·충청권 성장률↑ 소비지표 개선
주력산업 침체 호남 ‘마이너스 성장’에 모든 지표 악화

국감 이슈

지역간 주력산업의 경쟁력 차로 인한 성장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악화되고 있는 호남권 경제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

18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사진)은 지난 16일 광주지방국제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 부진으로 내수와 고용이 악화돼 결국 지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들의 대책과 분발을 촉구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 권역별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5% 내외에 달한 반면 동

남권은 1.8%, 1.1%에 그쳤고, 호남권은 0.0%로 부진했다. 또 권역별 제조업의 성장률도 수도권과 충청권이 10% 안팎에 달한 반면에 동남권은 1분기 0.6%에서 2분기 -0.5%, 호남권도 0.2%에서 -0.8%로 내려앉았다.

안도걸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별 주력산업의 경쟁력 차이가 통계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호남의 지역경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 여파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집적돼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수혜를 입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되려 침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기계·철강 중심의 동남권과 석유화학·금속가공 중심의 호남권은 악

화 일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 의원은 “국내 제1 석유산업인 여수화학단지는 가동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졌고, 고공도 1년 만에 4600명이 감소했다”며 “광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철강과 석화단지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타격을 입어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대미관세와 중동전쟁으로 다시 흔들려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8월말 제조업 생산지수를 보면 석유 정제가 -2% 급속 가공은 -24%에 달한다.

이렇게 주력산업이 흔들리면서 지역 내 소비와 실업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전국적으로 2분기 소비 지표는 2.4%에 달하는 등 호전됐

지만 전북이 -2.4% 광주가 0.6%, 전남이 -0.3%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결국은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들이 몰락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크게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며 가라앉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한국은행과 국제청의 지원을 촉구했다.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전북과 광주전남이 지역별 배분율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점을 지적하며 “이제 결국에는 중소기업한테 금리 부담이지 않느냐”며 “취약업체가 많아 그렇다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지원 확대 방안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 대출을 지방 중소기업한테 좀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정상화시키려는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 되면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전진숙 “건보 특사경법 조속히 처리해야”

“평균 수사 기간 13개월…재산 은닉 등 피해 심각” 지적

허위 치료 효과를 광고하거나 거액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뒤 잠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체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 장기화로 인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은닉하는 상황이 발생, 건강보험 재정 환수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북구·사진)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개설기관 피해사례와 수사 기간 자료를 공개하고,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의한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유출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촉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면허대여약국 역시 약사 면허 등을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단속 대



상이 돼 왔다.

전 의원은 공개한 자료에는 환자에게 거액의 치료비를 받은 뒤 잠적하거나 불법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이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실제 한 사무장병원은 산삼약집의 안 치료효과를 허위로 광고해 말기 암 환자 5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편취, 이후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폐업 전까지 환자 118명에 약 38억원을 선결제 받아 잠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징장 포착 시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 수사마저도 평균 13.7개월이 걸리면서 수사 장기화에 따른 증거 및 재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적 재정 유출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의원은 “불법 운영자를 찾아내 도 재산을 숨긴 뒤라면 국민의 보험료를 되찾기 어렵다”며 “범죄를 조기에 확인하고 증거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자료 분석 능력과 조사경험을 전문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문금주 “농협 지역본부 현행체계 유지를”

“조합원 편의 우선…농업 현장 지원 기능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사진)은 지난 16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농협 지역본부 통합 논의와 관련해, “조직 통합 자체보다 농업 현장 지원과 조합원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소방은 기존 전남·광주 소방본부장 2명을 유지하면서 통합본부장 직위를 신설했고, 경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구역 통합이 반드시 기존 조직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은 역시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인 만큼, 조직을 일률적으로 통합하기보다 농업 현장의 여건과 조합원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광주 농협 지역본부가 통합될 경우 광주 지역의 농업 현장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광주에서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금융·경제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직과 자원이 수직성 높은 분야에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농



업 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농협의 본질적인 역할은 농업인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현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조직 통합으로 농업 지원 기능이 약화되거나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 통합에 앞서 중복 업무 해소와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조직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농업 현장 지원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 유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조합원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농업 현장 지원이 축소되거나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권향엽,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42억5000만원 확보

순천·광양·곡성 4개 학교 교육환경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은 순천·광양·곡성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7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총 4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지역 내 4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으로, 학생

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지원 사업은 △순천시 해룡면 순천팔마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6억1700만원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중학교 도서관 증축 13억3900만원 △광



양시 진장면 한국향만물류고등학교 인조잔디 및 트랙 교체 9억7200만원 △곡성군 석곡면 석곡초등학교 수영장 보수 13억2200만원이다.

순천팔마중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광양제철중학교는 도서관 증

축으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와 학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향만물류고등학교는 운동장 인조잔디와 트랙 교체를 통해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석곡초등학교는 수영장 보수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향엽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학생들이 어떤 지역에 살든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